

W_F_049

저승 다녀온 우도 할망

2016년 10월 22일,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, 이현정 조사.
김옥종(남, 1924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[조사자] 우도 할망이 잊어낫우과?

[제보자] 잊었던 말이주, 오랜 게 아니고.

[조사자] 죽엇단 살아난?

[제보자] 응, 살아난 왕, 그, 재산 돈 잊는 걸 좀 엊는 사름 쪼꼼 풀려줘 된 간 거지. 게난 저승에서를 너는 돈 벌언 누게 엊는 사름도 안 주곡. 너만 먹고 살았다. 헷어이, 저, 저승더러 나가렌 헨 살아나온 거라. 거, 꿈에도 그렇게 나오고 허니까, 나완 그 할망이 더러 재산을 이제 좀 엊는 사람들 허쓸 젠에.

[조사자] 그때야 저승에, 저승에서 받아쥔?

[제보자] 받아줬지. 그런 말이 옛날 말인디. 아주 옛날도 아니지. 요 중간에 난 말인디. 그 것도 춤 연구헐 만헌 말이주.

[조사자] (웃음)

- 핵심어 : 저승, 우도 할망, 재산, 꿈